

보도시점 5. 14.(목) 석간 < 5. 14.(목) 06:00 >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성과 입증, 지역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본격화

-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 수익률 약 11.6%, 지역투자 성과 가시화
- '26년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의무 20% 부여, 지역성장펀드 2조원 규모 조성 등 지역투자 본격 확산
-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창업도시 특화 펀드 조성 및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 확충 등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대회)는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지역펀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 확대 등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누적 113개의 지역펀드를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해 왔다.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역펀드는 상장기업인 (주)엠플러스(청주), (주)웹트론(대전) 등에 초기 투자하여 수익률 15.2%, 수익배수 3.4배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의 수익률은 11.6% 수준을 거두며, 지역투자 역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그 결과, 정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펀드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 의무를 적용받게 됐으며, 지방소재 운용사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향후 지역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투자 우대사항) 지방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30% 이상 투자 의무 설정 시 가점 부여

** (지방투자 가점 신청 비중) '25. 29% → '26. 83%

(지방 소재 운용사 비중) '25. 8.8% → '26. 13.3%

아울러 자생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한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벤처모펀드인 지역성장펀드는 5년간('26~'30) 2조원 이상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대경권, 서남권, 전북, 대전, 울산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지역성장펀드 출자자로 참여한다. 이를 활용하여 4대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대경권(대구) 등에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부산 사무소를 동남권 투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권역별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자기관 발굴 및 벤처캐피탈 육성 등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태펀드가 꾸준히 지역 투자생태계를 육성해 온 결과가 지역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들과 지역 투자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병민 (044-204-7713)
			주무관	조세곤 (044-204-7715)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	책임자	본부장	장남준 (02-2156-2031)
담당자		팀 장	김태연 (02-2156-2047)	